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팽팽한 매크로 줄다리기 속 수급의 이동

2026. 9. 18 장전(Pre-market) 핵심 전략 및 자산 동향

KOSPI 6,715.41 (0.00%)

KOSDAQ 822.18 (0.00%)

NASDAQ 25,978.42 (+1.69%)

WTI \$100.74 (+\$2.62)

US 10Y 5.00% (+5bp)



BoJ 금리 결정 (1.25% 예상)

예상치 상회 시 '엔 캐리 청산'
발작 가능성. 국내 증시
수급 변동성의 핵심 트리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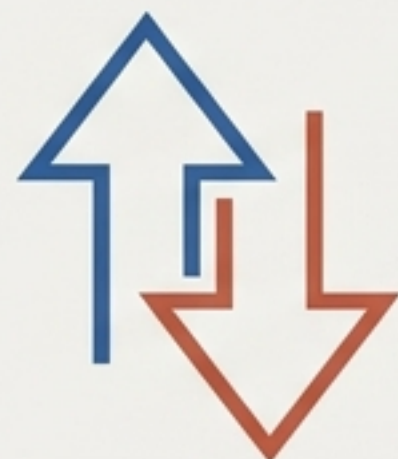
미국 & 유럽 CPI 발표

미국 3.3% 재가속 전망.
미 국채 10년물 5.00% 시대 안착
여부 및 나스닥 랠리 지속의 분수령.



WTI \$100 & 금 \$500 돌파

사우디 공급 우려로 인한 인플레이
재점화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
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완벽한 결합.
국내 8월 PPI 0.2% 상승 전환.



외국인 수급의 이중성

단기 7거래일 연속 매도(-2.3조)
vs. 지난달 8개월 만의
대규모 순매수(+1.9조).
구조적 뷰 변화 감지.

매파적 FOMC & 고금리/고유가

미 10년물 5.00%

WTI \$100.74

8월 PPI 0.2% 상승

Global
Market
(S&P, KOSPI)

기술주 펀더멘털 & 비달러 강세

나스닥 1.69%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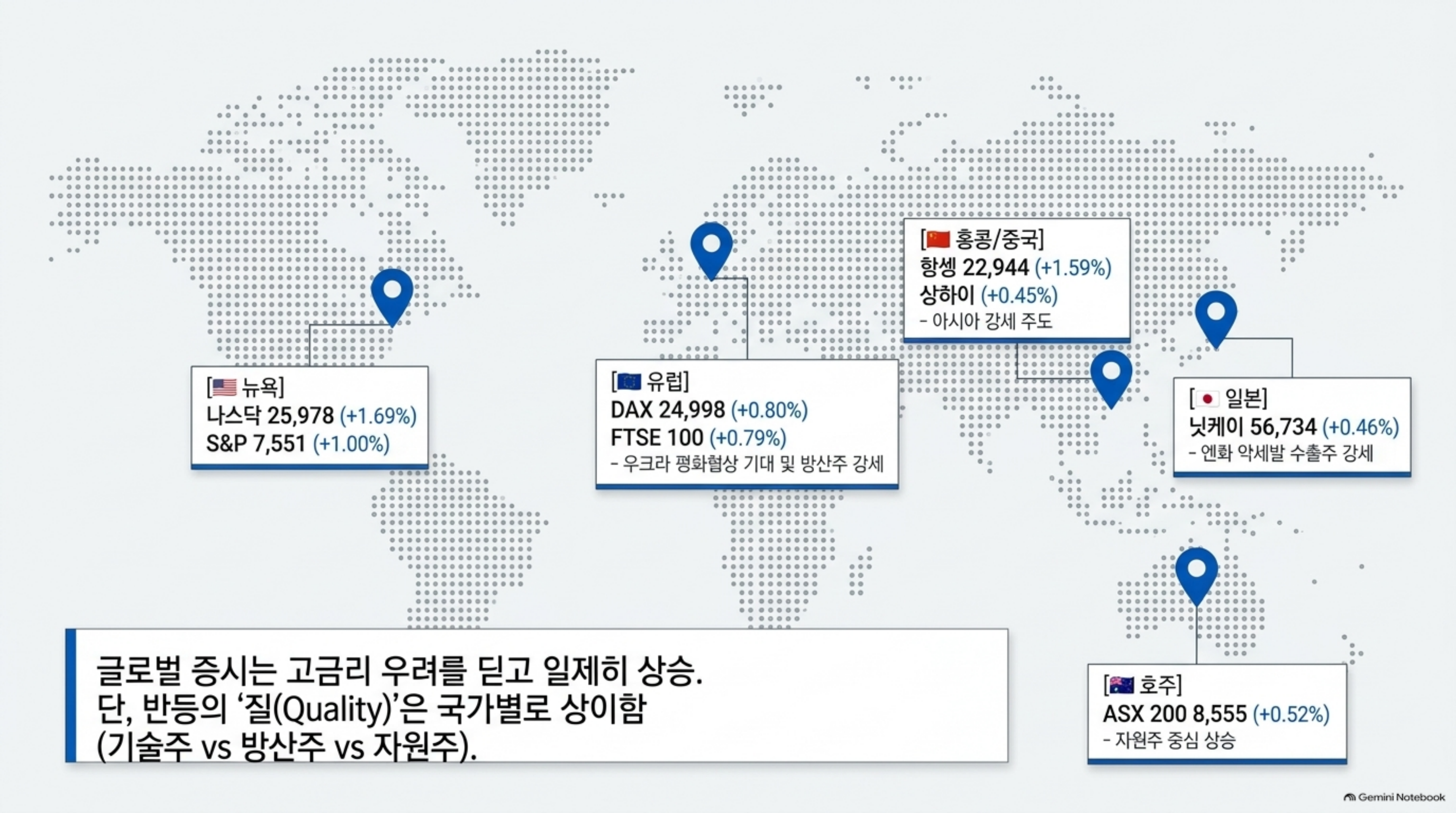
달러 인덱스 하락 (-0.32)

빅파마 수혜주 약진

악재를 소화하는 기술적 반등: FOMC 충격과 10년물 5% 돌파라는 거대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,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감과 유로화 강세가 단기적인 시장의 먹살을 잡고 4거래일 만의 랠리를 견인함.

FICC MULTI-ASSET DIAGNOSTIC MATRIX

ASSET	PRICE	CHANGE	TREND	SIGNAL
안전자산 (Risk-Off)				
미 국채 10Y	5.00%	+5bp		FOMC 매파 기조에 장기물 부담 가중
금 (XAU)	\$500	+\$18		물가 방어 및 고금리 장기화 대비 수요 폭발
인플레이션 (Inflation)				
WTI 원유	\$100.74	+\$2.62		사우디 감산 우려 연장, 인플레 뇌관
대체/위험 (Alternative)				
비트코인	\$67,350	+\$1,240		ETF 순유입 지속에 따른 독립적 강세
원/달러	₩1,380.32	-5.30원		유로 강세발 달러 약세의 반사 이익



[🇺🇸 뉴욕]
나스닥 25,978 (+1.69%)
S&P 7,551 (+1.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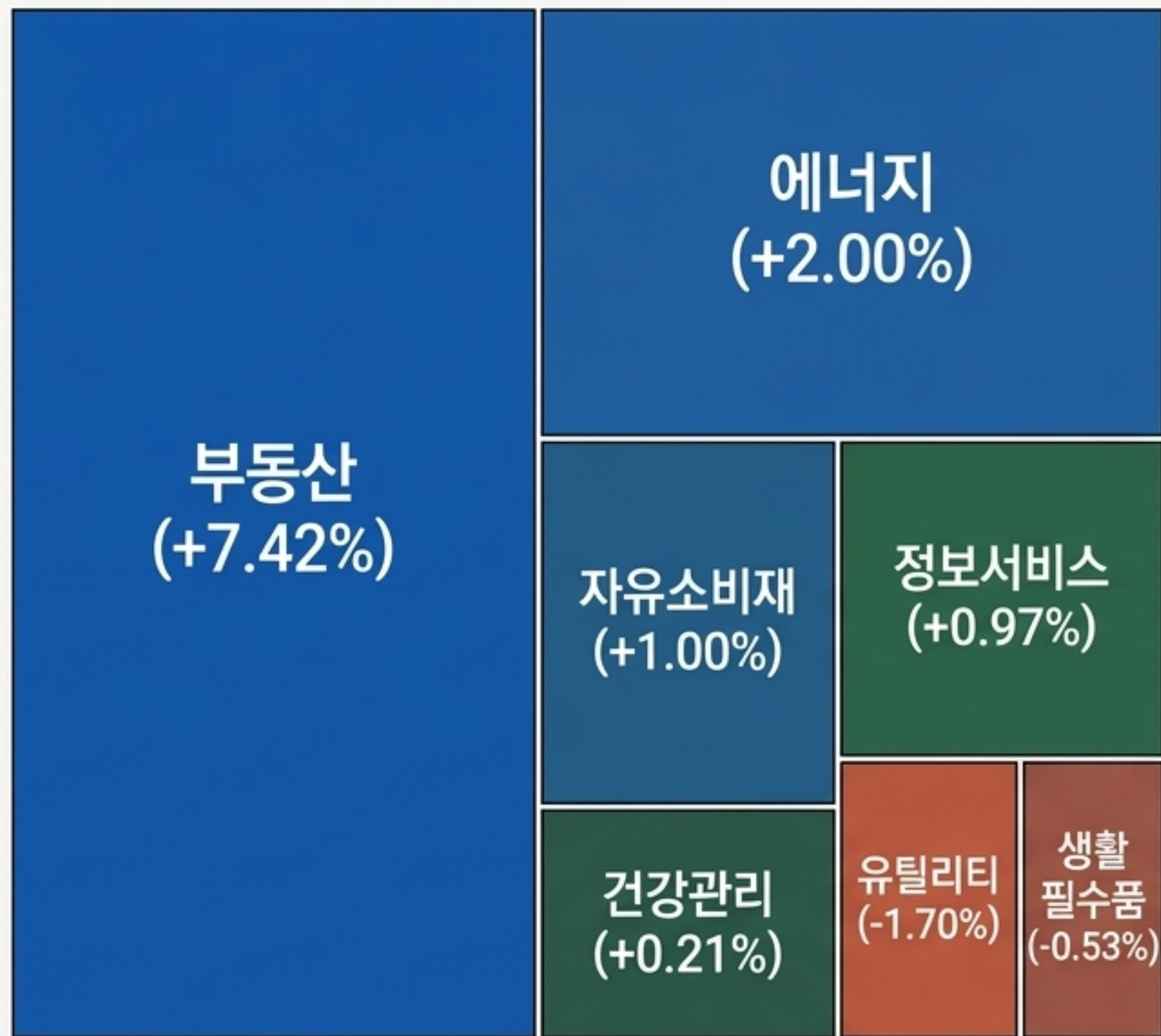
[🇪🇺 유럽]
DAX 24,998 (+0.80%)
FTSE 100 (+0.79%)
-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 및 방산주 강세

[🇨🇳 홍콩/중국]
항셱 22,944 (+1.59%)
상하이 (+0.45%)
- 아시아 강세 주도

[🇯🇵 일본]
닛케이 56,734 (+0.46%)
- 엔화 약세발 수출주 강세

[🇦🇺 호주]
ASX 200 8,555 (+0.52%)
- 자원주 중심 상승

글로벌 증시는 고금리 우려를 딛고 일제히 상승.
단, 반등의 '질(Quality)'은 국가별로 상이함
(기술주 vs 방산주 vs 자원주).



성장주의 저력

국채 5% 압박을 뚫고 헬스케어와 인플레 헷지(부동산, 에너지) 섹터가 시장 장악.

구조적 패러다임 시프트

미국 증시, 12월부터 '평일 23시간 거래' 확대 추진 및 연중무휴 가능성 검토.
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근본적 지각변동 예고.



6,715.41 (0.00%)



822.18 (0.00%)

결박된 지수

외국인의 거센 매도 폭격(2.3조)이라는 역풍을, 개별주 장세가 완벽하게 상쇄하며 지수를 강보합권에 결박함.

내부 순환매 장세

지수는 멈췄으나 내부는 치열함. 방산 및 조선업의 강세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으며, 코스닥에서는 비츠로테크 등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극단적인 종목 장세 연출.

단기 흐름 / Short-term 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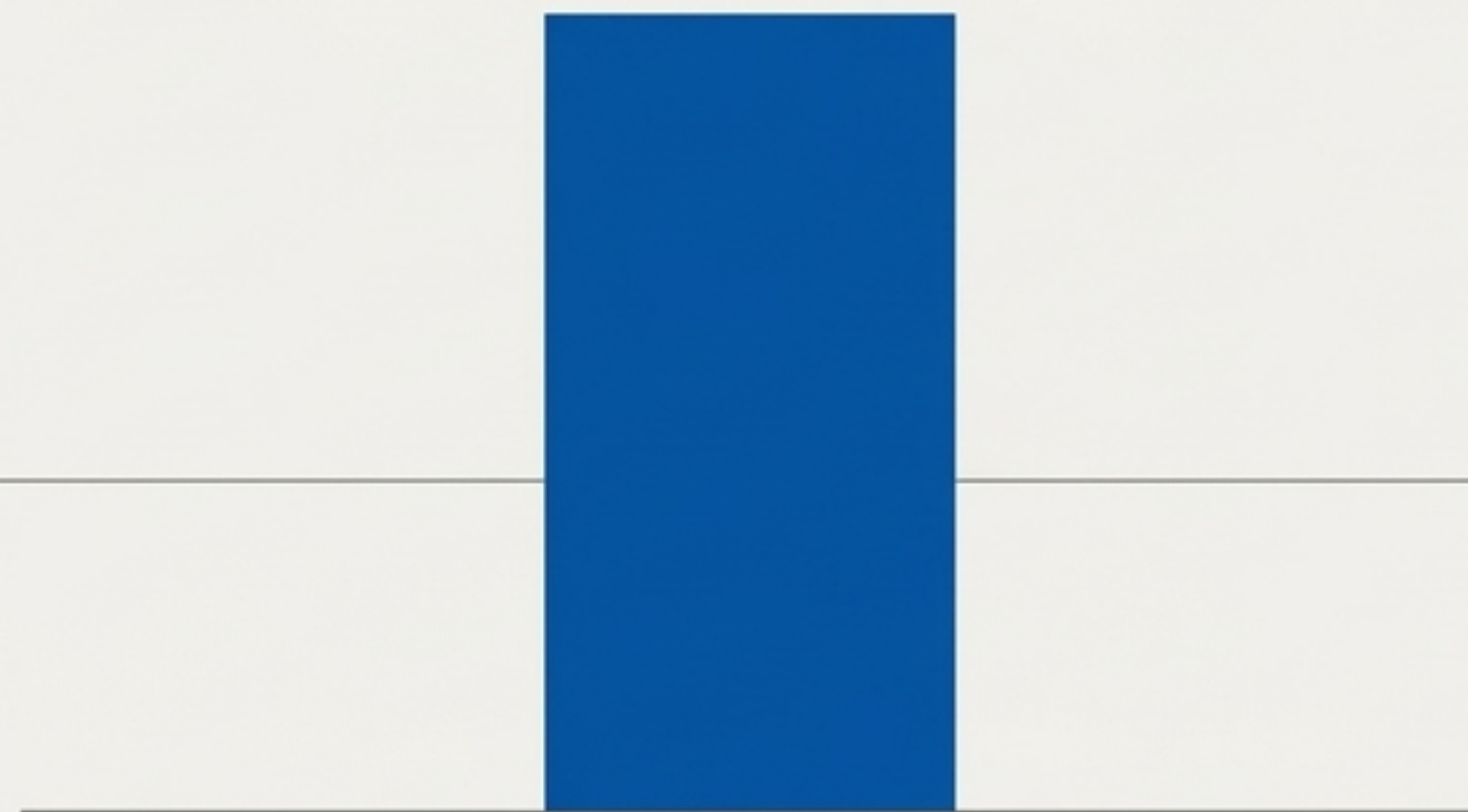
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도 (-2.3조 원)



- 매파적 FOMC 경계감 및 금리/유가 부담에 따른 전술적 차익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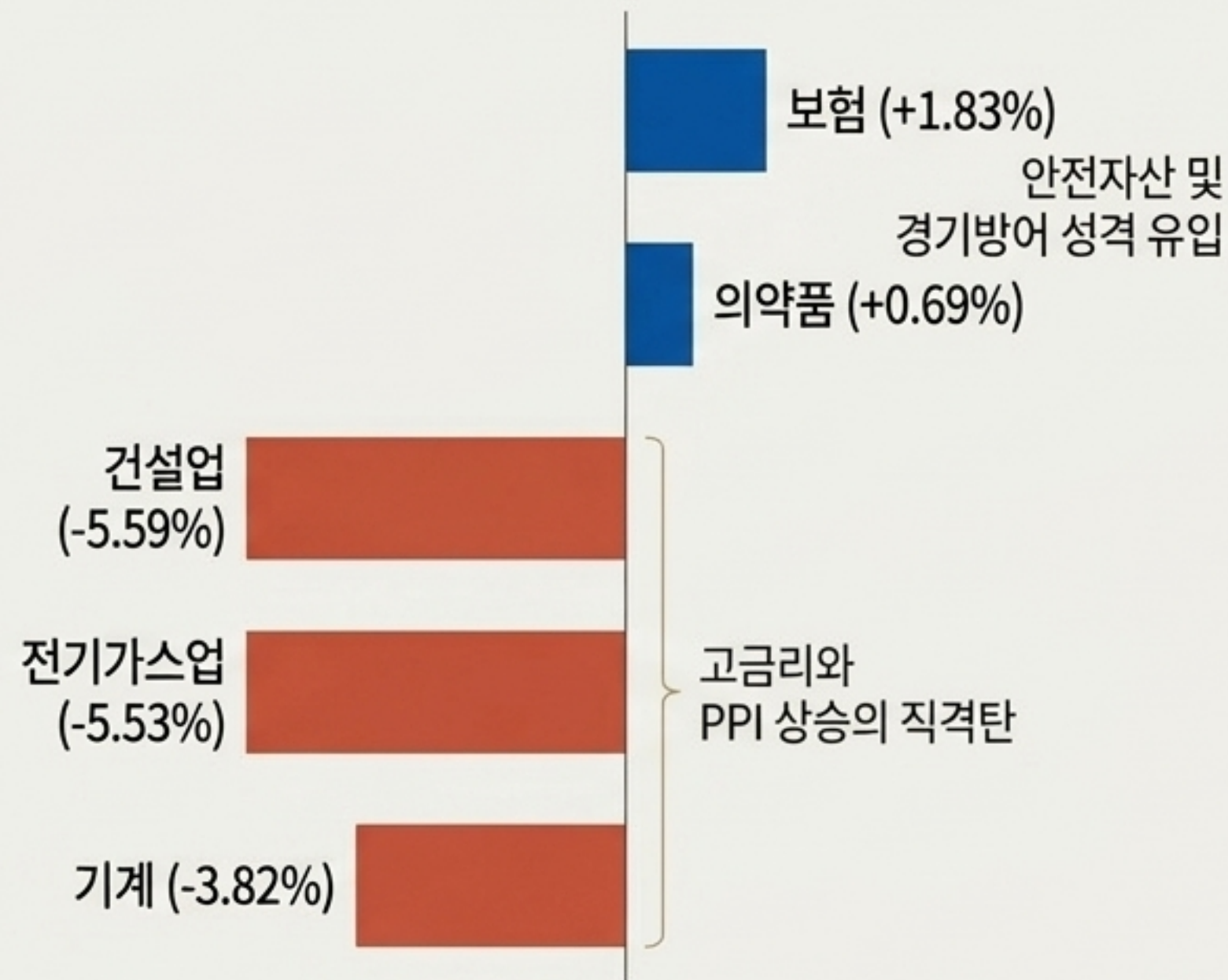
중장기 흐름 / Mid-term View

8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 전환 (+1.9조 원)



-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 'View'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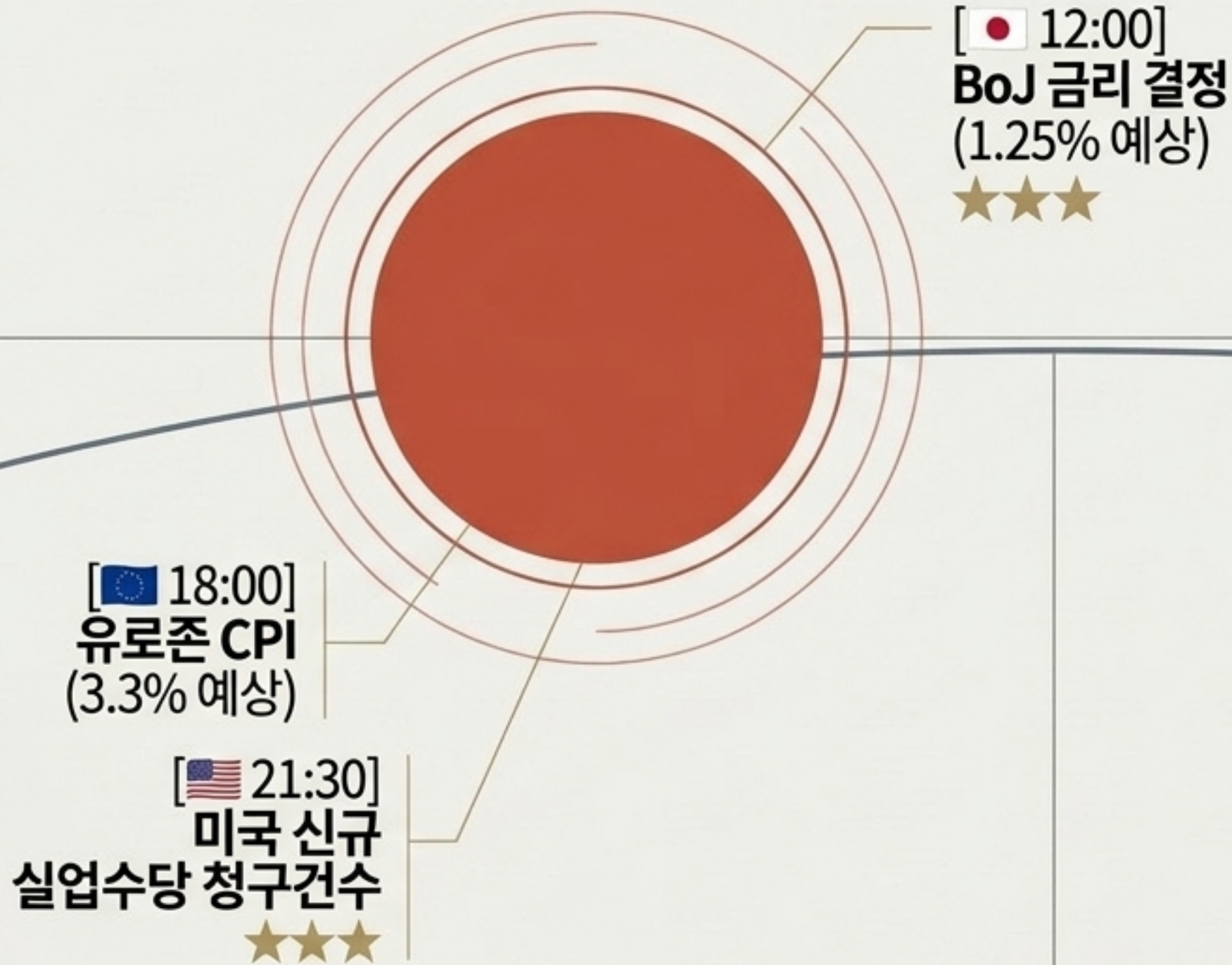
외국인의 스탠스는 완전한 이탈(Exodus)이 아닌 단기 리스크 회피(Hedging)에 가깝다.
단기 매도세 진정 및 매크로 불확실 해소 시 강한 수급 재유입 가능성 농후



“초대형 반도체 투톱이 방향성을 상실하며 지수를 동결시킨 가운데,
철저하게 매크로(금리/물가) 민감도에 따라 업종 간 극단적인 수익률 양극화 진행 중.”

Event Horizon

슈퍼 프라이데이 (9/18 오늘)



Next Milestone (9/23 ~ 9/24)





[Rule 1] 방향성 베팅 자제 (Wait & See)

일본 BoJ 결과(12:00) 및 미국 CPI 확인 전까지 지수 방향성에 베팅하는 포지션 확대 엄금. 매파적 경계감 최우선 유지.



[Rule 2] 맹목적 추격 매수 회피 (Avoid)

뉴욕 증시 급반등에 편승한 묻지마식 국내 기술주 추격 매수 자제 (국내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 꼬임 상태).



[Rule 3] 핀셋 공략 (Targeting)

(Hedge) \$500을 돌파한 금과, 달러 약세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안전자산 비중 확대. (Alpha) 지수 플레이 대신, 모멘텀이 증명된 방산·조선 섹터 및 코스닥 개별주 철저한 순환매 단기 트레이딩 접근.